

기혼 남녀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예측성 연구 :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Predicting Resilience of Married Couples : Focused on the Couple Violence

신라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강사 방현주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윤경자

Dept. of Counselling for Children and Family, Silla Univ.

Lecturer : Hyun-Ju Bang

Dept. of Childcare and Family Counseling

Professor : Gyung-Ja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identify how well the predictors of family resilience using selected ENRICH subscales measure couple resilience of spouse abusing couples; (2) to verify how predictors of family resilience differentiate abusive partners from non-abusive partners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non-violent couples hav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family resilience factors than violence experienced couples. The accuracy of discriminant analysis was as high as 85.7% for non-violent couples and 85.4% for violence experienced couples. Wherea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couple's flexibility had the highest discriminant power, socio-economic resources and 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 had little contribute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redictors of family resilience have high discriminant power for distinguishing violent groups from non-violent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clinically utilized in identifying violent groups and designing couple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부부폭력(Couple violence),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가족신념체계(Family belief systems), 조직패턴(Organizational patterns),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es)

I. 서론

최근 10년간 가족학에서는 가족 혹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도전)에서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고려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학에서 이 개념은 가족의 강점, 자원,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효과적인 기능 등으로 제시되어 왔다(Patterson, 2002). 즉, 가족이 힘든 문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가족은 오히려 더 건강하면서도 더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결핍과 병리에 초점이 있는 접근보다는 강점과 자원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Hawley & Dehann, 1996). 특히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산 혹은 재생력은 가족 레질리언스의 설명에 유용한 개념이다.

레질리언스는 상호적 관점을 지향하므로 문제로 인한 긴장이나 취약성은 가족의 비효과적인 대처노력에 의해 심화되고 이것은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낼 위험을 높일 수 있다(Walsh, 1998). 이러한 위험성은 폭력을 포함한 가족 내 학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족내 학대와 폭력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유해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다. 부부 하위 체계에서의 폭력은 '가족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친밀한 배우자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Segrin & Flora, 2005). 이 연구들은 대개 현상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폭력원인 규명, 예방과 대책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김예정, 김득성, 2001). 그러나 가족폭력 경험에 대해 레질리언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부체계는 가족 체계의 핵심이 되므로 다른 어떤 하위의 가족관계보다 그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체계 내에서의 폭력은 결국 가족 내의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위기로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모간의 폭력을 보고 성장한 자녀가 결혼 후에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 내의 이런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것이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 중의 하나(Segrin & Flora, 2005)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레질리언스의 체계적 관점은 그 적용점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이나 아동에 대한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옥선화, 이미숙, 이주리, 권희경, 남영주, 2006; 김미옥, 2001; 최차숙, 2002 등). 그러나 가족 레질리언스의 체계적 관점은 개인과 아동 레질리언스에서 간과되어온 '가족'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 과정에 따라 가족을 강화시키는 개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Walsh, 1998).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부 하위체계를 중심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 과정으로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을 제시하였다.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며 조직패턴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개념을,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개방성,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부폭력이라는 위기 경험을 Walsh가 제시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에 대입하여 레질리언스 예측 변수가 부부간 폭력을 얼마나 잘 판별해주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부부간 폭력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폭력에 대한 집단분류와 예측력을 도출해내고, 판별력에 기여도가 높은 예측 변수들을 규명하여 부부의 위기 극복과 부부 레질리언스 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ENRICH 하위척도들을 이용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기혼 남녀의 부부 레질리언스를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 연구문제 2. 기혼 남녀의 부부 레질리언스는 부부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으로 구성된 판별 모형은 부부관계에서 비폭력집단과 폭력집단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정의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은 임상 혹은 발달심리학과 아동과 청소년기 가족이 어떻게 그들의 역경을 극복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주로 활용되어져 왔다. 발달적 정신병리학자들은 레질리언스를 결과적으로 좋은 것(good outcome)을 만들어내는 위기와 자산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으며, Luthar, Cicchetti 와 Becker(2000)는 구체적인 역경상황 내에서 긍정적인 수용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Patterson, 2002에서 재인용). Walsh(1998)는 레질리언스란 역경에서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지고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 인내하고 스스로 회복, 성장해가는 역동적 과정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의

존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기존의 가족 건강성 개념과 레질리언스가 차별화되는 점이다. 레질리언스가 강점중심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가족 건강성 개념과 유사하지만, 가족의 경험하는 시간선상에서 위기나 역경이라는 분기점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념과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연구하고 있는 Stinnet et al., (2004)은 심각한 가족문제 없이 지나온 가족과 이혼경험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있는 가족을 비교하여 가족 건강성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레질리언스는 가치, 태도 및 행동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 맥락 안에서 상호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 (Hawley & Dehann, 1996).

가족 레질리언스를 규정할 때 가지 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Patterson(2002)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현장가(practitioner)와 연구자의 레질리언스 접근법에 대한 차이이다. 현장가는 가족의 강점(strengths) 중심 접근법이나 결핍 중심 접근법으로 이해하였고 연구자는 위기의 시기에 가족이 발휘한 기능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는 결과로서의 레질리언스인가 아니면 레질리언스에 기여하는 특징, 보호요인, 위험 요인과 관련된 과정으로서의 레질리언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차별화의 혼란이다. 세 번째는 분석단위에 대한 혼란이다. 예를 들어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일 때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족과정을 기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족 내 관계적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레질리언스와 구분된다(Walsh, 1998). 또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고려할 때는 가족 내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가족구성원, 세대, 혹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Conger, conger, 2002). 이런 면에서 레질리언스는 '과정으로서의 레질리언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대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성공적인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간 문제의 공유 수준, 해결점을 찾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협조적인 태도와 유대감 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가족은 역경이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행동과 기능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붕괴되지 않을 수 있다.

레질리언스의 체계적 관점은 가족단위의 이러한 경험과정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견디도록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레질리언스적 관점은 가족의 위기 극복과정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산(assets)과 강점

(strangths)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과 신념체계이다(Walsh, 1998). 결국 레질리언스에서 중요한 작용점이 되는 것은 가족의 역경인 셈이다. 그리고 레질리언스는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했는가에 대한 과정의 기술이다.

2.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과정

Walsh(1998)가 제시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념체계 : 신념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 된다. 대개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해나간다. 가족 레질리언스에서 신념체계는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이것은 레질리언스의 관계적 맥락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관계에 기초하는 협력의 가치를 강조한다. 즉, 가족이 직면하는 위기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기, 손상, 회복, 레질리언스로 가는 경로에서 인과적인 신념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요소는 긍정적 시각이다. 이것은 희망과 낙관적인 관점의 유지에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가족간의 격려나 잠재력을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포기가 아닌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은 중요한 작용점이다. 세 번째 요소는 초월과 영성이다. 이것은 보다 큰 가치와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평가, 확인 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조직패턴 : 가족은 효과적으로 위기를 다루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환경이나 가족내 변화에 적합하도록 재조직되어야 한다. 조직패턴은 가족 레질리언스의 관계적 맥락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가족기능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요소는 융통성이다. 이것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에 초점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도전에 대해 가족은 얼마나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결성(connectedness)이다. 이것은 상호지지, 협력, 책임, 경계의 존중을 강조한다. 그래서 관계적 연결성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능력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간 제휴는 연결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레질리언스는 융통성 있는 제휴와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자원이다. 레질리언스에서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여기서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오히려 관계적 지지망에 더 가깝다. 그래서 확대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인적 자원을 주 요소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일과 가족 긴장과의 균형을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의사소통 과정 : 갑작스러운 위기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가족이 놓이게 될 때 오히려 의사소통은 깨어지기

쉽다. 가족 레질리언스를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말이다. 그래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 노력은 가족 구성원이 욕구와 관심사를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로 인한 변화에 재적응하기 위해 그 변화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요인은 명료성이다.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왜곡될 때 가족구성원들은 쉽게 잘못된 가정과 해석을 함으로써 오해와 혼돈을 일으킨다. 위기상황은 침묵이나 비밀, 왜곡을 통해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정보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게끔 한다. 이것은 주로 상처입기 쉬운 가족구성원을 보호한다는 의도로 행해지나, 사실은 진실이 공개된 뒤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만약 가족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감정이 공유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족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족 레질리언스 형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개방적인 감정표현으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은 다양한 감정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강한 감정적 표현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에게 숨을 쉴 여유를 주게 된다. 개방적 의사소통이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 혹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불안한 미래의 재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차단되거나 막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의 극복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족을 같은 국면(same page)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Segrin & Flora, 2005).

의사소통과정의 세 번째 영역은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이다. 이것은 가족기능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를 다루는 데는 더욱 그렇다. 대개 가족의 문제 해결능력은 가족을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늘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나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결국 위기상황을 다루는 데까지로 이어지게 된다. 위기와 전략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족기능이 도구적 측면에서 어려움(직업이나 수입의 손실)을 겪을 때, 정서적 욕구를 다루는 능력도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모두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명료한 의사소통을 통해 레질리언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족은 갈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전략을 잘 구사할 줄 아는 능력도 함께 배양된다.

한편, 최근 가족폭력의 발생요인으로 대인간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서혜석, 2005; Segrin & Flora, 2005). 이상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레질리언스에서 가족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가족폭력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가족폭력과 레질리언스적 관점 : 의사소통 과정의 접근

가족폭력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개 연구의 초점은 '통제'와 '의사소통 유형'에 있었다(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김예정, 김득성, 2001; 이종선, 권정혜, 2002; 서혜석, 2005; Segrin & Flora, 2005).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는 가족폭력은 폭력이 단순한 행동적 사건이 아니라 결혼관계의 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부체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그 기본 전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레질리언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의사결정공유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갈등해결에 주목한다. 이것은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의 개입과정과 연관된다.

의사결정공유는 협상과 타협, 그리고 상호성이라는 공통요소를 내포하고 있다(Walsh, 1998). 이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과 최종 결정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협상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공유된 목적을 향하여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타협과 조절을 이기는 것 또는 지는 것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통제 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억압된 개인은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Walsh, 1998). 그래서 통제에 대해 생각할 때, 의사소통 과정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요소는 부부가 상대방을 향해 구사하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one-up message, Segrin & Flora, 2005, p.361)'이다. 유리한 메시지는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워 배우자를 조종하려 하거나 자신이 분명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언어적 시도이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언어적 공격성으로, 이것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갈등해결과 관계가 있다. 언어적 공격성 역시 배우자에 대한 통제 욕구를 반영하는 행동(Segrin & Flora, 2005)이지만, 유리한 메시지에 비해 더 강력한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적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든 의사결정이 합의로 일관되지는 않는다.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 비난 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를 다루는 과정이며, 이것은 특히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다. Segrin과 Flora(2005)에 의하면, 대개의 부부들은 논쟁적 반응과 언어공격적 반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일치를 표현한다고 한다. 논쟁적 반응은 어떤 주제에 대한 배우자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언어공격적 반

응은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배우자의 자아를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Rogers와 그의 동료들(Rogers, Castleton & Lloyd, 1996)은 공격적인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유리한 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부인보다 남편이 유리한 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부는 서로에 대해 언어적 공격성을 주고받는 경향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유형의 부부들은 언어적 공격성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정적인 상관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종선, 권정혜, 20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적 공격성은 폭력적인 결혼에서 더 보편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될 수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신체적 폭력에 선행되고(이종선, 권정혜, 2002), 신체적 폭력의 촉매(김득성 외, 2000)로 작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Walsh(1998)는 레질리언스와 관련하여 부부의 '안전한 상황'을 강조하였다. 어떤 형태든지 폭력은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므로 안전감은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부의 레질리언스는 서로의 차이를 참아낼 수 있고 갈등을 더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 모두의 욕구를 경청하고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제공될 때 확립된다는 것이다.

한편, Stonsny(2003)가 제시하는 온정(compassion)개념은 레질리언스 관점으로 폭력을 이해하는 데 그 적용점이 높은 개념이다. 그것은 이 개념이 개인의 재생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의 기본 전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제대상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내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것이다. Stonsny는 통제의 대상을 관계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경험이라고 보았다. 가해자(주로 남편)가 실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 자신의 내적 경험이고, 다만 이것이 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의 경험에 초점이 있고 그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온정을 통해 불쾌한 내적 감정을 조절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레질리언스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이다. 이것은 김미옥(2005)의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레질리언스와의 상호협조적 관계를 제시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이에 ENRICH[®] 검사를 받은 부부 694명(총 374쌍)이다.²⁾

이 자료는 ENRICH KOREA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2차 분석한 것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은 결혼기간 10년 미만이 6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31세에서 35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남편의 경우 회사원 관련 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94)

변수	구분	남편		부인	
		빈도	%	빈도	%
연령	만 25세 이하	1	(0.3)	6	(1.7)
	26~30세 이하	37	(10.7)	79	(22.8)
	31~35세 이하	142	(40.9)	127	(36.6)
	36~40세 이하	70	(20.2)	53	(15.3)
	41~45세 이하	43	(12.4)	50	(14.4)
	46세 이상	54	(15.6)	32	(9.2)
결혼기간	0~5년 이하	138	(39.8)	139	(40.1)
	6~10년 이하	101	(29.1)	102	(29.4)
	11~15년 이하	39	(11.2)	40	(11.5)
	16년 이상	69	(19.9)	66	(19.0)
직업	공무원/사회복지	26	(7.5)	6	(1.7)
	법조계/의료계	15	(4.3)	8	(2.3)
	회사원/영업/기술직	116	(33.4)	39	(11.2)
	전업주부	2	(0.6)	164	(47.3)
	성직자/교수/교사/강사	108	(31.1)	69	(19.9)
	중소기업대표	18	(5.2)	0	(0.0)
	상업/농업	23	(6.6)	11	(3.2)
	학생	12	(3.5)	7	(2.0)
	무직/실업	9	(2.6)	13	(3.7)
	기타	18	(5.2)	30	(8.6)
교육수준	대학원 졸업	125	(36.0)	56	(16.1)
	4년제 대졸	148	(42.7)	173	(49.9)
	전문대 졸업	25	(7.2)	49	(14.1)
	고졸	43	(12.4)	62	(17.9)
	중졸/이하	6	(1.7)	7	(2.0)
월평균소득	0~70만원 미만	35	(10.1)	128	(36.9)
	70~100만원 미만	36	(10.4)	38	(11.0)
	100~150만원 미만	68	(19.6)	55	(15.9)
	150~200만원 미만	72	(20.7)	50	(14.4)
	200~300만원 미만	70	(20.2)	39	(11.2)
	300~400만원 미만	30	(8.6)	17	(4.9)
	400~500만원 미만	16	(4.6)	13	(3.7)
500만원 이상	20	(5.8)	7	(2.0)	
종교	기독교	319	(91.9)	329	(94.8)
	천주교	6	(1.7)	4	(1.2)
	불교	3	(0.9)	1	(0.3)
	기타	19	(5.5)	13	(3.7)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기혼남녀로서, 1998년에서 2002년

1) ENRICH는 순환모델에 근거하여 Olson et al(1980)이 개발한 부부관계 사정도구로써, 한국에서는 ENRICH KOREA가 그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연구의 raw data는 ENRICH KOREA(대표 : 나희수 목사)에서 제공되었다. data 분석에 동의하고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주신 ENRICH KOREA에 감사드린다.

업이(33%)로 가장 많았고, 성직자, 교사 등도 31%를 차지하였으며 부인은 전업주부가 47%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남편의 경우 78% 이상이었으며, 부인은 66%에 해당하였다. 소득은 남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40.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10%, 400만원 이상이 10.4%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47.9%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이 5.7%였다. 연구대상자의 뚜렷한 특징은 종교에서 나타나는데, 부부모두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연구대상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조사시기의 차이에 따른 코호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용어정의 및 측정도구

1) 용어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레질리언스 : 위기나 역경을 포함하여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부부폭력 : 전체 결혼기간 동안의 폭력 경험을 의미하며 대상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남편과 부인으로 제한하고,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폭력 및 학대까지 포함한다.

2) 측정도구

부부체계는 가족체계의 하위체계이므로 Walsh(1998)가 제시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ENRICH(Evaluation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척도에서 예측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추출, 재구성하였다. ENRICH 척도는 Olson과 동료들(Olson, Fournier & Druckman, 1987)이 개발한 부부관계 사정도구이다. 척도는 결혼만족도, 성격, 의사소통, 갈등, 재정, 여가, 성, 자녀/양육, 가족/친구, 역할, 종교적 신앙 등 11개 영역에 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개인적 특성, 부부응집 및 적응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총 1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Walsh가 제안한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부부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으로 측정하는 변수는 신념체계³⁾

의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조직패턴의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사회경제적 자원, 의사소통과정의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이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역코딩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점수화하였다. 모든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님(1)에서 정말 그러함(5)의 범위를 가지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요인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신념체계 : 5문항으로써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① 긍정적 시각 : 부부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코딩 처리되었다.

② 초월과 영성 :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종교적인 신념, 부부의 신념공유나 종교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한다.

(2) 조직패턴 : 21문항이며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이루어졌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9$ 이었다.

① 부부 적응성 : 모두 7문항이며 1문항은 역코딩되었다.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다를 때 혹은 변화가 있을 때 각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도 정도 등을 측정한다.

② 부부 응집성 :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부의 유대감, 친밀성, 생활이나 기타 다른 활동들의 공유 정도, 의사결정 등을 측정한다.

③ 사회경제적 자원 :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문항이 역코딩되었다. 확대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지원에 대한 태도, 소비경향이나 저축에 대한 태도, 배우자의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한다.

(3) 의사소통과정 : 7문항으로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동적 문제해결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5$ 였다.

① 명료성 : 1문항이며 역코딩되었다.

② 개방적 정서표현 :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문항이 역코딩되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얼마나 그것을 표현하는가 등을 측정한다.

③ 상호협동적 문제해결 :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얼마나 타협하려고 하는지,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한다.

3) Walsh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핵심구성영역에 따르면 신념 체계에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NRICH 척도에서 가장 적합한 문항을 발견할 수가 없어 이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기초 통계,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설정한 예측요인이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요인분석, 연구목적에 의해 판별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척도구성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Ch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부부 레질리언스 척도구성의 적합성

이 연구에서 구성한 레질리언스 척도의 구성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요인분석을 이용하였고, 추출기준은 Eigen value가 '1' 이상의 고유치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시켰다. 척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추출적합도(KM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보면, 신념체계 .83($p < .0005$), 조직패턴 .92($p < .0005$), 그리고 의사소통과정 .89($p < .0005$)으로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구상검증치는 모두 $p < .0005$ 에서 유의하였다. 이것은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상관행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의 변수들을 제외하고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신념체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요인부하량이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요인만이 검출되었다. 조직패턴을 구성하는 세 변수 중 부부유통성과 부부응집성에서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요인부하량 .3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간 구별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조직패턴을 구성하는 부부유통성에서는 전체 8개의 문항 중 한 개의 문항 요인부하량이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제외한 7개의 문항들을 사용하였고, 부부응집성에서는 전체 10개의 문항 중 2개가 요인부하량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제외한 8개의 문항들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자원은 전체 10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및 상호협력적 문제해결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9개의 문항 중 요인부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두 문항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NRICH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된 부부 레질리언스 문항들은 기혼남녀의 부부 레질리언스를 잘 예측하고 있으며, 척도의 누적설명변량은 의사소통과정 53.37%, 조직패턴 55.62%, 신념체계 59.58%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자원의 경우, 2가지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것은 Walsh(1998)의 개념구성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ENRICH 척도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즉 Walsh(1998)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소득

<표 2> 기혼남녀의 부부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communalities	누적설명%
신념체계	131	.867	.751	59.58
	145	.858	.737	
	45	.776	.603	
	90	.738	.544	
	94	.586	.344	
조직패턴	79	.731	.673	55.62
	19	.649	.499	
	141	.645	.537	
	34	.539	.407	
	127	.512	.414	
	49	.469	.322	
	64	.446	.359	
	85	.765	.641	
	2	.732	.647	
	126	.723	.664	
	113	.720	.610	
	10	.679	.539	
	37	.652	.511	
	70	.611	.562	
	139	.387	.641	
96	.369	.663		
81	.453	.670		
136	.506	.525		
58	.396	.681		
116	.382	.623		
146	.174	.494		
의사소통과정	4	.806	.650	53.37
	22	.782	.612	
	93	-.779	.606	
	35	.753	.567	
	121	.725	.525	
	3	.648	.420	
	18	.596	.355	

<표 3>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communalities	누적설명%
경제적 영역	96	.768	.591	33.69
	81	.876	.768	
	136	.664	.508	
사회적 영역	58	.756	.575	52.71
	116	.746	.595	
	146	.354	.126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표 4〉 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

()=표준편차 (n=693)

레질리언스의 핵심과정	예측 변수	비폭력집단의 평균	폭력집단의 평균	F값
신념체계	긍정적 시각	3.867(1.019)	2.268(1.323)	91.341***
	초월과 영성	17.077(3.313)	14.341(4.304)	25.283***
조직패턴	부부 유연성	24.314(3.921)	17.049(4.717)	129.086***
	부부 응집성	29.319(5.486)	19.561(6.679)	118.647***
	사회경제적 자원	21.864(3.880)	18.195(4.589)	33.695***
의사소통과정	명료성	2.919(1.120)	1.415(0.631)	72.420***
	개방적 정서표현	10.903(2.401)	7.293(2.250)	87.855***
	상호협동적 문제해결	11.034(2.429)	5.951(2.519)	168.137***

***p<.0005

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사회경제적 접근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망을 더 강조하고 일과 가족간의 조화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 개념에 따라 사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2 : 예측 변수들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폭력경험 유무에 따라 연구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부부관계에서 폭력 경험이 없는 비폭력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부부관계에서 폭력 경험이 있는 폭력집단이다. 부부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이 되는 신념체계, 가족과정,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F값은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의 결과이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폭력 경험 집단보다 모든 예측 변수들에 대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수는 판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문제 3 : 레질리언스 구성 변수에 따른 집단간 예측

부부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이 부부관계에서 기혼남녀의 폭력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을 구별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예측변수들은 신념체계 영역에서는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조직패턴 영역에서는 부부 유연성, 부부 응집성, 사회경제적 자원, 그리고 의사소통과정 영역에서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이다. 전체 694명 중 listwise 방법으로 missing data를 제외하

〈표 5〉 판별기능 적중률 (n=693)

실제집단	사례수	예측된 집단	
		비폭력 집단	폭력 집단
비폭력 집단	652	563 (86.3%)	89 (13.7%)
폭력 집단	41	6 (14.6%)	35 (85.4%)

실제 적중률 : 86.3%, 85.4%

고 총 693명이 분석되었으며 Stepwise 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수들을 Wilk's Lamda 방식으로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레질리언스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가 집단을 구분하는 판별력이 있음이 나타났다(Wilk's Lamda값=.782, X²=169.288, p<.0005).

판별함수 계수에 의해 분류된 집단유형별 적중률은 〈표 5〉와 같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판별기능에 의한 전반적인 분류분석은 85.7%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비폭력 부부집단은 86.3%, 폭력 부부집단은 85.4%의 예측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즉,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을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이 86.3%,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을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정확히 예측할 확률이 85.4%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부부폭력 판별모형은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과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에 대해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부부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에 의한 판별분석 결과는

〈표 6〉 가족 레질리언스 판별함수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변수들간 구조행렬계수와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

단 계	예측 변수	구조행렬 계수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
1	상호협동적 문제해결	.933	.668
2	부부 유연성	.818	.162
3	부부 응집성	.784	.264
4	긍정적 시각	.688	.217
5	개방적 정서표현	.675	.026
6	명료성	.612	-.015
7	사회경제적 자원	.418	-.162
8	초월과 영성	.362	-.147

고유값 .279
 설명변량(%) 100.0
 정준상관 .467
 Chi-square 169.288
 Wilk's Lambda .782***

***p<.000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예측 변인들로 구성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상관인 정준상관값이 .461이며 판별함수의 설명력은 100.0%로 나타났다. 예측변수들이 판별력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구조행렬에 의하면 모든 예측변수들이 유의미한 판별 변수에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호협동적 문제해결($r=.933$)이며, 부부유연성($r=.818$)과 부부응집성($r=.784$)의 설명력도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를 보면,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부응집성과 긍정적 시각의 영향력이 그 뒤를 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판별분석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소가 기혼남녀의 부부간의 폭력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와 부부의 폭력정도에 따라 부부 레질리언스는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제시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레질리언스 예측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것으로, 폭력경험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폭력 경험이 없거나 거의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폭력 경험이 많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두 집단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레질리언스 예측변수들이 이 연구대상자들의 레질리언스 수준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ENRICH척도에서 추출된 선택적 문항들이 부부관계에서 폭력집단과 비폭력 집단 모두의 부부 레질리언스를 측정하는데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예측 변수들은 부부관계에서 폭력 정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판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판별함수의 판별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별 예측력의 경우, 이 예측 모형은 부부관계에서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데 85.4%의 예측 정확도를, 그리고 비폭력 기혼남녀들을 예측하는 데 86.3%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즉, 이 모형이 부부간의 폭력발생 예측에 유용하다는 것으로 가족폭력의 위험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데, 부부생활을 강화시키고 부부폭력 방지와 교육에 개입하는 상담자와 교육자들이 내담자들을 스크리닝(screening) 단계에서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특징, 원가족 및 피해자 연구 등 많은 변수들이 이용되고 있

지만, 이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모형의 변수들은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과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예측 변수들이 판별력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이다.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부 유연성, 부부 응집성, 긍정적 시각, 개방적 정서표현, 명료성, 사회경제적 자원, 초월과 영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과정 중에서도 상호협동적 문제해결이 두 집단을 매우 효과적으로 변별해주는 가장 좋은 예측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레질리언스적 의사소통과정의 특징 즉, 의사결정의 공유정도와 차이에 대한 상호적 수용(긍정적 또는 부정적)이 가족폭력의 설명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폭력은 물리적 행동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며, 특히 관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공격성은 신체적 폭력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이다(이중선, 권정혜, 2002; Segrin & Flora, 2005).

상호협동적 문제 해결 다음으로 부부 유연성과 부부 응집성이 중요한 예측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의사소통과정의 설명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Olson의 순환모델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과 적응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차원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이다. 응집과 적응은 가족의 기능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가족 내에서 어떤 사건이나 도전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재구조화 수준과 가족간 유대감 정도를 보여준다. 가족기능과 가족간의 불일치는 상호협력적이고, 가족 불일치에 대한 역기능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발전된 도식(Segrin & Flora, 2005, p.366)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예측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폭력 부부에 대해 부부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입노력은 의사소통과정과 조직패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판별 기여도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변수인 신념 체계에서의 초월과 영성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집단은 대부분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한다면 초월과 영성 변수가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판별 기여도가 가장 낮은 변수로 드러났다. 이것은 변수의 독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부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 중 조직패턴은 가족의 완충장치로써,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은 부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요소로써 작용하여 신념체계에 비해 보다 더 사정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 많고 상대적으로 신념체계는 더욱 인지적이고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Asai & Olson의 연구(2002)로도 뒷받침된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부부학대와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부학대에 관한 예측요인들을 규명하였는데, 종교적 신념(spiritual beliefs)은 부부학대의 예측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신념체계는 위기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부여(meaningful)를 가져다 주는 기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통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부여는 오히려 개인과 가족에게 상황을 기꺼이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념체계, 특히 초월과 영성은 자아 재생력과 관련된 '치유 메커니즘(Walsh, 1998, p.77)'에 더 적합한 변수라고 추론된다. 척도의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으나 개방적 정서표현, 명료성, 사회경제적 자원 등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경이나 위기를 중요한 작용점으로 보는 레질리언스적 관점에 부부폭력이라는 위기 상황을 대입하여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결과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레질리언스 관점에 입각한 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등에 다양한 활용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척도는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시간이 적게 소요되므로 임상적으로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부간 폭력을 예측해봄으로써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 폭력에 대한 레질리언스 강화 개입에 있어, 의사소통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와 함께 조직패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하나는 연구 집단의 특성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향력 집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코호트 효과의 문제이다. 원자료가 1998년-2002년에 걸쳐 수집 되었으므로 집단의 코호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시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의 레질리언스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김미옥(2001). 장애 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34-70.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351-381.

김예정, 김득성(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 구타에 미치는 영향-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모의희, 김재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서혜석(2005). 자아존중감 및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V.Satir 성장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0(1), 25-41.

옥선화, 이미숙, 이주리, 권희경, 남영주(2006).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개발 연구 :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 59-74.

이종선, 권정혜(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프로마 월시 저, 양옥경 외 옮김(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경기도 파주: 나남.

최차숙(2002). 가족탄력성과 비장애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ai, S. G., & Olson, D. H.(2002). Spouse Abuse & Marital System Based on Enrich. www.prepare-enrich.com/files/Article_info/abuse.pdf.

Conger, R. D., & Conger, K. J.(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61-373.

Hawley, D. R.,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3), 283-298.

Kelly, J. B., & Emery, R. E.(2003).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4), 352-362.

Luthar, S, Cicchetti, D., & Becker, R.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 (1987).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ENRICH Canada Inc.
- Olson, D. H., & Fournier, D. G. (1996). *ENRICH 질문지: Version 2000*. ENRICH Korea: 서울.
- Orthner, D. K., Jones-Sanpei, H., Williamson, S.(2004). The Resilience and Strengths of Low-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3(2), 169-167.
- Patterson J. M.(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 Rogers, L. E., Castleron, A., & Lloyd, S. A. (1996). Relational Control and Physical Aggression in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s. In D. D. Cahn & S. A. Lloyd(Eds).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218~239. Thousand Oaks. Sage:CA.
- Segrin, C., & Flora, J.(2005). *Family Communication*.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innett, N., Stinnett, N., Beam, J., & Beam, A. 제석봉, 박경 역 (2004).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학지사:서울
- Stonsny, S. 김정옥, 김득성, 박충선, 송정아, 이희자 역 (2003). *가정폭력 치유 프로그램*. 신정:서울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 The Guilford Press.
- Walsh, F.(Ed. 2002). *Normal Family Process* (3rd Edition). NY : The Guilford Press.

(2006년 8월 5일 접수, 2006년 11월 30일 채택)